



Online Series

2014. 12. 24. | CO 14-18

북한정치: 2014년 평가와 2015년 전망

김갑식(통일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1. 2014년 북한정치: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기반 확보

2014년도 북한정치 최대 화두는 장성택 숙청에 따른 어수선한 민심을 수습하고 권력구조를 안정화하여 김정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었다. 2013년 신년사에는 ‘유일적 영도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2014년 신년사에서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대한 언급을 명확히 하였다. 그간 김정은이 국정 경험이 일천하다는 이유로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가 후견 지배체제, 집단지도체제 등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북한은 장성택 숙청을 통해 김정은 유일영도 확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인격적 리더십 선전과 사상교양 강화

북한은 2014년 연초부터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의 모습을 부각하는 조치를 취했다. 군중대회에서 ‘김정일 찬양가’는 사라지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가 집중적으로 불리었고, 북한 매체에서 김정일의 사진이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2월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으로 당 사상일꾼대회를 개최하여 전사회적으로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사상전’을 진행하였다. 이후 당원과 노동자, 학생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김정은의 ‘백두혈통’과 ‘유일적 영도’, ‘수령 결사옹위’ 관철을 위한 사상교양 강화가 연일 강조되었다.

김정은의 ‘제도적 리더십’에 더해 ‘인격적 리더십’을 고취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김정은을 고아, 무의탁 노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자애로운 지도자’로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고, 장성택 처형 이후 ‘어린 지도자’에 대한 불안감을 차단하고 세대교체의 정당화를 내세우기 위해 김정은의 ‘어림’을 ‘시대의 젊음’으로 포장하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선전활동을 강화하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보다 20년이나 앞당겨 김정은에게 ‘아버지’ 호칭을 일반화시켜 대중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했다. 이러한 인격적 리더십의 강화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을 김일성, 김정일과 동격화시켜 명실상부한 ‘3대 수령’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 것이다.

당 중심 정치와 장성택세력 숙청

장성택 숙청에 이은 ‘종파잔재 청산’ 작업은 일년 내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리영수 당 근로단체 비서, 리태남 내각부총리 등이 북한정치에서 사라졌다. 숙청과 동시에 김정은은 당·군 엘리트의 기강 세우기를 강화하였다. 김정은은 매우 이례적으로 당의 책임 일꾼들에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7.30)을 직접 지시하였고, 잦은 보직 변동과 계급 강등으로 군 엘리트층의 군기를 잡고자 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각종 군사훈련을 참관 또는 지도를 함으로써 군 영도자로서의 위상을 드러냈고, 군중·군단급 지휘성원 사격대회(3.17), 해군지휘관 수영대회(7.2) 등을 통해 군에 대한 장악력을 과시하였다.

2014년은 당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안정화가 정착되어 북한정치의 중심이 ‘당’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한 해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3.17, 4.27), 정치국 회의(4.8), 최고인민회의 회의(4.9, 9.25) 개최 등 당과 국가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주요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하루 앞둔 4월 8일 당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제출될 국가지도기관 구성안을 토의하고 조직문제도 취급하였는데, 이는 김일성 시대처럼 당정치국에서 미리 결정된 사안들을 최고인민회의에서 형식적 절차를 밟아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양새를 갖춘 조치였다. 또한 총정치국장에 당료 출신인 최룡해와 황병서를 잇따라 임명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군부의 조직문제를 논의하는 등 당회의 통해 군부 인사를 결정하였다. 이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 복귀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김여정-최룡해-황병서 삼각편대와 세대교체

2014년 북한정치의 또 다른 특징은 김정은 정권 권력진용의 기본 열개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수차례의 핵심엘리트의 변동을 겪으면서 김여정의 백두혈통, 최룡해의 빨치산혈통, 황병서의 당·군 테크노크라트 집단 등으로 구성된 ‘삼각편대’라는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졌다. 장성택 숙청과 더불어 가계의 대표격인 김경희의 정치적 위상은 무너졌으나, 김여정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부부장이라는 직책으로 비교적 무난하게 백두혈통의 영향력을 복구하고 있다. 빨치산혈통의 대표주자인 최룡해는 황병서에게 총정치국장을 물려준 이후에도 당정치국 상무위원, 당비서, 국가체육지도위원회장 등 사실상 2인자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오일정 당부장과 오금철 인민무력부 부총참모장은 빨치산혈통의 떠오르는 별이라 할 수 있다. 수십 년간 당조직지도부에서 활동한 당료 출신인 황병서는 총정치국장에 임명되어 군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엘리트진용의 기본 열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세대교체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었다. 김정일 장례의원 50위 내 핵심엘리트들이 김정은 정권 3년 동안에 정치적 숙청이나 노령으로 인해 약 60%가 사망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였다. 김정은은 그 빈자리에 50대를 주축으로 한 측근들을 발탁하여 세대교체를 진행하면서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내각에서는 임철웅, 김덕훈, 최영건 등 기술관료 출신의 신진인사가 새로 부총리에 임명되었고, 군부에서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리병철 당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이 중용되었다. 이렇듯 2014년 북한정치는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기반이 일정 수준 확보된 해라 하겠다.

2. 2015년 북한정치 전망: ‘김정은식 북한’ 만들기

2015년 북한정치의 최우선 과제는 ‘김정은식 북한’ 만들기로 전망된다. ‘김정은 조선’, ‘김정은 백두산강국’ 건설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은 해방·당창건 70주년, 한국전쟁 65주년, 6.15공동선언 15주년, 탈상 3년의 해이다. 이제 북한은 백두혈통의 정통성만으로는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이 보장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3년을 ‘성스러운 3년’이자 ‘불덩이처럼 뜨겁게 흐른 3년’으로 평가하여 공식적으로 유헌통치를 종결하고, 2015년부터는 김정은이 ‘역사의 조종간’을 직접 잡고 있음을 선전할 것이다.

제5차 당대표자회 개최

2015년 북한 정치일정은 ‘당창건 70주년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만드는 데 집중될 것이다. 10월 10일 당 창건일에 즈음한 최고인민회의와 당대표자회 개최가 유력하다. 북한은 이 양대 회의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엘리트 진용 정착,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의 강화 등 김정은 색채의 새로운 정책적 성과를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인민생활이 향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 성과를 자랑해야 하는 ‘당대회’보다는 김정은 친정체제를 과시하는 ‘제5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물론 김정은 정권의 과격성, 과시욕을 고려할 때 제7차 당대회 개최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핵문제·경제문제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회를 개최하여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2010년 9월 김정일이 생존해 있을 당시에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는 3대 권력세습을 통해 후계체제 구축을 하려는 김정일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었고, 2012년 4월 김정일 사망 이후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는 김정은과 지도부의 권력이양기 엘리트구도가 표출된 것이었다. 이제 2015년 10월에 개최될 제5차 당대표자회(혹은 7차 당대회)에서는 명실상부한 김정은 정권의 중장기적 엘리트 진용이 확인될 것이다.

김정은 색채 가미된 국가정책 발표

이와 더불어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존 노선을 종합하고 ‘김정은의 색채’를 가미하여 ‘김정은의 정책’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협동농장 인센티브 제도, 국영기업 자율권 등 제한적으로 실시하여 온 개혁조치를 포함하는 ‘김정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핵무기·미사일의 고도화와 전력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사노선’을 발표하여 군사지도자로서의 위용을 연출할 수도 있다. 또한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2015년 상반기에 남북국회회담,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등 선제적 대화 제의를 통해 통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

2015년에는 이미 구축된 백두혈통(김여정)-빨치산혈통(최룡해)-당·군 테크노크라트(황병서) 등 ‘삼각편대’가 강화될 것이다. 이 삼각편대 하에서 2014년 권력상층부의 세대교체와 종파청산에 이어, 2015년 상반기에는 중상층 엘리트의 종파잔재 청산에 집중하여 그 자리에 40~50대의 신진인사를 배치, 김정은 친정체제를 공고히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대표자회에서 ‘종파적결 완료’라는 ‘김정은의 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1958년 당대표자회에서 종파청산 종결을 선언한 바 있다.

당 중심 정치의 정착과 ‘종파잔재’ 청산

김일성 리더십을 김정은에게 덧씌우고자 하는 북한의 노력은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 이미지를 앞세우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전통적 지지계층 및 여성·아동·노인 등 ‘특정보호대상’을 배려하는 ‘친민적(親民的)’ 리더십을 시현하려 할 것이다. 또한 군에 대한 유일명령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김정은의 군 영도 능력을 과시하고 군대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료 출신의 총정치국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통해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견고히 하여 상층 군부 엘리트의 충성경쟁과 군부 길들이기에 매진할 것이다.

그리고 당 중심(조직지도부, 총정치국)의 정치시스템 강화와 제도적 안정화는 정착단계에 돌입할 것이다. 당정치국, 당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여전히 부족한 김정은의 통치능력을 보완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사업에서의 내각책임제도 강조될 것이다. 내각총리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춘 신진 테크노크라트를 대거 영입하여 ‘김정은의 경제정책’의 성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수령 리더십’ 한계와 체제의 구조적 불안정성

2015년 북한은 ‘김정은식 북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정은에게 군사지도자, 통일지도자, 경제지도자 등 수령의 위용을 입히려는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는 ‘자신들의 언어’로 당창건 70주년에 선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수령’의 반열에 오르려면 사상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상황의 개선이 불투명하고 북한사회가 사상중심 사회에서 이익중심 사회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실천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를 제시하기가 녹록지 않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형식적으로 종합한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순수 이데올로기(pure ideology)만 반복하고 있고, ‘김정일 애국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 철학’처럼 과도기적 통치담론에 머물러 있다. ‘수령 김정은’의 등장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더욱이 김정은 정권 3년을 지나면서 정치적 안정성은 일단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불안정성이 배태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저, 장성택 숙청으로 인해 정책과정에서 합리적인 건의나 조율 시스템이 붕괴되고 오직 김정은의 즉흥적 판단과 권력층의 충성경쟁, 자기보신과 맹목적 복종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으로 북한 권력층의 ‘공동운명체 의식’이 약화되고 점차 이익선회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탈상이라는 정치적 허니문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권력과 이권을 향한 이합집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은 북한정치사에서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KINU 201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